



역사 용어 해설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교과서 10~87쪽

학년 반 번 이름 :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조선은 ()적 통치 규범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경국대전』을 편찬 하였다.

2. 신라는 ()에 따라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졌다.

3. ()은/는 주로 언론 기관인 3사에 배치되어 공론 정치를 주도하였다.

4.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 대가를 받고 물품을 납품하는 ()이/가 등장하였다.

5. 조선 후기()의 도입에 따라 1인당 경작지가 늘어나면서 광작이 나타났다.

6. 무신 정권기 최충헌은 ()(이)라는 강력한 통치 기구를 만들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7. ()은/는 원 간섭기에 새롭게 형성된 지배층이다.

8. 고구려는 ()에서 왕과 5부의 대가들이 함께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정답 |

1. 유교, 2. 골품, 3. 사림, 4.공인
5. 모내기법, 6. 교정도감, 7. 권문세족,
8. 제가 회의

경국대전(經: 경서 경, 國: 나라 국, 大: 큰 대, 典: 법 전)

조선 시대에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이다. 세조 때부터 편찬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이는 고려 말부터 조선 성종까지 역대의 법을 집대성한 성문 법전이다. 조선의 법률 체계와 통치 체제의 골격이 되었다.

계급 사회(階: 섬돌 계, 級: 등급 급, 社: 모임 사, 會: 모임 회)

계급의 구별과 대립이 있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에 농경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함에 따라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계급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골품제(骨: 뼈 골, 品: 물건 품, 制: 억제할 제)

신라 시기 기존의 족장 세력을 통합하고 편제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지배층 중심의 혈통에 따라 나눈 신분 제도를 의미한다. 왕족은 성골과 진골, 귀족은 6두품에서 1두품까지 8개의 신분으로 편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골은 없어지고 3~1두품은 평민으로 간주되었다.

공녀(貢: 바칠 공, 女: 여자 여)

고려·조선 시대에 중국 원나라 명나라의 요구로 여자를 바치던 일 또는 그 여자를 가리킨다.

공론 정치(公: 공평할 공, 論: 논할 론, 政: 정사 정/칠 정, 治: 다스릴 치)

공정한 의견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하며, 여론과 비슷한 뜻을 지닌다. 공론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공론을 ‘백성의 이해관계’로 생각하였다. 이후 사림이 정치세력으로 정립되면서 공론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선조 대에 이르러 공론정치가 정립되었다. 공론정치는 봉당정치 체제에서 각 봉당이 공론에 입각한 정책을 표방하면서 상호 공존적 정치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환국정치 이후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공인(貢: 바칠 공, 人: 사람 인)

조선 후기에 성행하던 나라에 공물을 먼저 바치고 값을 나중에 타 내던 사람들을 뜻한다. 광해군 이후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모든 공물을 쌀로 바치게 되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게 되자 국가로부터 대동미를 대가로 받고 물품을 납품하였다.

광작(廣: 넓을 광, 作: 지을 작)

조선 후기에 벼농사에서 이앙법의 보급으로 노동력이 절약됨에 따라 일어난 농지 확대 현상을 의미한다.

교정도감(敎: 가르칠 교, 定: 정할 정, 都: 도읍 도, 監: 볼 감)

고려 시대에, 관리의 임면(任免) 및 감찰 업무를 맡아보던 최고 권력 기관이다.